

# 한국과 일본의 장인(匠人)정신 비교 연구\*

정수현  
(연세대학교)

## 1. 머리말

서양 사람들의 이름 중에는 Smith(대장장이), Baker(빵굽는 사람), Barber(이발사) Butcher(정육점주인, 도살업자), Carpenter(목수), Cook(요리사) Taylor(재봉사) Stewart(집사), Shoemaker(신발수선공) 등 조상들의 직업을 따라 지어진 것이 많다. 조상이 어떤 노동에 종사했고 어떻게 사회에 기여했는지 알려주는 것을 중요시했던 서양 문화의 특성은 그들이 짓는 이름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어떤 노동에 종사했는지를 자기와 자손의 이름에 남김으로써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후손에게 전달한다.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2011년 크게 인기몰이를 했던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현빈이 자신의 반짝이 운동복을 설명했던 말이다. 세계 패션의 중심지인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명성은 모두 화가, 직물 장인, 디자이너 등 장인들이 형성한 문화의 산물이다. 중세의 음악, 미술에서부터 현재의 프라다, 구찌, 페라가모,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까지 장인(匠人)에 의해 탄생한 브랜드가 전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서양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그 직업을 장인정신과 함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기술의 가치를 높이 인정해주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장인이 계속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장인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았다. 서양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자식에게 기술을 물려주어 집안 대대로 이어가도록 하는데 비해 우리 장인들은 오히려 말리려 드는 게 예사였다. 역사가 오랜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진정한 장인 정신으로 전통을 이어오는 경우가 흔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전통의 가치를 지켜왔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던, 그마저 시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의 장인들의 존재를 일깨울 필요성이 있다.

대량 생산, 대량 판매, 기계, 공장 이런 단어들에 현대인들에게 갖는 의미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설 자리를 잃은 장인들을 현대에 들어와서 다시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를 노동사회학자인 리처드 세넷 Sennet 뉴욕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제 아무리 기술이 첨단을 달린다고 해도 현대문명의 근본은 여전히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의 손끝에서 품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sup>1)</sup>

본고에서는 장인의식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이 주로 유럽의 장인에 대한 고찰에 편중되었던 것과는 달리 한국과 일본의 장인문화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문화형성 배경에 있어서 유사한 문화적 특질을 공유하고 있어 비슷한 듯 하지만 매우 이질적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장인문화를 들 수 있다. 두 나라의 장인정신을 나란히 두고 살펴보는 것은 한일문화의 근본적 차이점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뿐더러, 두 나라의 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한국의 장인(匠人)에 대한 연구는 우리 문화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장인들의 예술세계를 점검한 예용혜의 <인간문화재> (1968 어문각)가 그 대표적 성과물이다. 이 책은 본격적인 연구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인의 예술세계와 내력을 다루고 있다. 인간문화재의 종류와 장인들의 세계, 장인문화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를 시발점으로 해서 장인이 이룩해낸 문화의 기본적 성격을 탐구

1) 리처드 세넷, 『장인: 현대 문명이 잃어버린 생각하는 손』, 김홍식 옮김, 21세기북스, 2009.

한 본격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장인을 단편적으로 다룬 몇몇 소논문들 뿐 아니라 장인의 세계를 심층적으로 다룬 학위논문들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장인들의 교육방식인 도제 제도에 대한 고찰한 이효창의 연구<sup>2)</sup>가 있고, 조선사회를 배경으로 장인의 신분구성과 사회적 역할, 그리고 장인들의 사회적 위상과 처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시대별로 조사하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장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문헌과 참고자료를 수집한 김영애<sup>3)</sup>의 연구가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일본사회의 장인정신을 주목한 논문 또한 나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성과로는 일본의 장인을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일본 현대사회에서 장인의 역할을 살핀 신혜원<sup>4)</sup>의 연구, 일본 장인들의 정신과 기술이 존속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과 국가적 제도를 연구한 박중서<sup>5)</sup>의 논문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과 일본 각각의 장인문화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지만 한국과 일본의 장인정신을 본격적으로 비교 고찰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장인정신과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윤리를 밝힘과 동시에 그것이 변용되어 현재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인의 개념과 그 역사적 변천을 통해 장인정신의 본질을 살펴보고, 장인정신의 근본 정신이 되는 덕목들을 추출해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한국과 일본에 내재되어 있는 장인정신의 현주소를 점검해보고 장인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바치와 쇼쿠닌(職人)

우리말에는 직업을 나타내는 접미사가 여럿 있다. 중세 시대에는 중국 말글

- 
- 2) 이효창, 『조선시대 장인제도와 장인교육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12.
  - 3) 김영애, 『전통수공업과 장인사회의 변천에 관한연구』,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12.
  - 4) 신혜원, 『일본의 장인정신에 관한 연구』,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2007.12.
  - 5) 박중서, 『일본 장인정신 형성의 사회적 배경연구』,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2013.6.

우월 사상에 빠져 우리말을 천시하였기 때문에, 주로 서민들의 생계를 위한 직업에 이러한 우리말 접미사가 붙어 쓰였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치’, ‘-꾼’, ‘-장이’ 들이다. 이들 가운데 ‘-바치’가 본고에서 논하는 장인(匠人)에 가까운 개념이라 하겠다. ‘장이’는 직접 물건을 만들지 않고 수리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도 붙이는 말인 데 반하여 ‘바치’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나 무엇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이다.<sup>6)</sup>

장인을 우대하고 기술을 존중하는 서양과는 달리 동양에서 장인들에 대한 인식과 지위는 최하위 계급인 노예나 천민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장인들의 경우는 인접한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가혹한 환경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였다. ‘재주가 좋은 사람은 팔자가 사납다’는 말에 볼 수 있듯이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낮추어 보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유교의 가르침에서도 잘 나타나는 바 군자는 불기(不器)라 하여 일정한 전문인이 되지 말고 덕(德)이 있는 독서인이 되라고 가르치었다. 그리하여 성인(聖人)의 고전적 교양을 글로써 체득하고 과거에 합격하여 관록을 먹고 지위를 이용하여 거부(巨富)를 쌓고 문인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만이 태평을 이루게 된다고 믿었다”<sup>7)</sup>

이렇게 우리나라 장인들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장인들 스스로도 그 기능에 자긍심을 갖지 못했으며 그 결과 자손 대대로 기능을 물려주는데 인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도살업이라든가 무당업이라면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신이 자기네 직업을 숨기려 들고 ‘죽지 못해 하는 일’이라고 여겼다.

황순원이 1965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일월(日月)』은 ‘백정’의 후손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겨운 지를 잘 보여준다. 성공한 기업이

6) “바치”는 한자말로 ‘장인(匠人)’에 해당하는 순 우리말이다. 흔히 ‘-장이’와 비슷한 말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장이’가 ‘대장장이’, ‘땀장이’처럼 직접 물건을 만들지 않고 수리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도 붙이는 말인 데 비하여 ‘바치’는 제조업자를 주로 지칭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갓바치’라고 하면 가죽신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고 ‘성냥 바치’는 단지 성냥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성냥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다. 박남일, 『우리말 풀이사전』, 서해문집, 2004, p.305.

7) 윤태림, 『한국인』, 현암사, 1986, p.210.

의 아들로 촉망받는 건축가였던 주인공 인철은 그의 아버지가 백정출신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제까지 쌓아 올렸던 부와 명성, 평판은 삽시간에 잃게 되고 단란했던 그의 가족은 해체되어 버린다.

황순원은 『일월(日月)』의 집필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가문을 따져 인물을 평가하려 드는 사회의식 구조, 그리고 그 벽에 부딪쳐 소외감을 느끼고 비극을 빚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일월(日月)』의 테마입니다. 사회 계급 제도는 동서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이 심하게 우열을 따진 곳은 드문 줄 압니다. 더욱이 직업에 대한 귀천의 가림은 유다른 것이었죠. 직업 중에서도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백정이라 해서 사람 취급조차 않으려 들었습니다. 백정 천대는 제도상으로도 확고한 것이었습니다. 『일월(日月)』은 바로 백정 가문 출신이 현대에 와서까지 소외되고 그로 해서 고독을 느끼는 양상을 펼쳐 본 것입니다.<sup>8)</sup>

장인은 천민집단이거나 하층의 집단이었다. 광대, 무당, 백정, 승려 등과 조선시대에는 같은 위치에 놓여있거나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 장인들에 대한 인식과 지위는 그야말로 서양의 고대의 상황에서와 같이 최하위적인 노예나 천민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에게는 자신의 일을 물려주고, 물려받은 이는 이를 다듬고 발전시키는 장인정신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가? 한국인들에게 장인정신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여러 역사적 문헌들은 삼국시대 우리 장인들이 창조적인 재능에 치열한 장인의식을 더하여 우리나라 수공업사(手工業史), 나아가 문화사에 큰 업적을 남겼음을 입증해 보여주고 있다.

백제에서는 기와 장인을 ‘와박사(瓦博士)’라고 불렀고, 6세기 후반 이들을 왜국에 파견하여 기와제작법을 전수하기도 했다. 그렇게 백제 때는 와박사를 비롯한 장인들이 높은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신라의 탈해왕은 자신을 본래 단야(鍛冶), 즉 대장장이 출신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8) 『독서신문』, 독서신문사, 1972, 1.16

신라와 가야의 대형 고분들에서는 집게, 망치, 숫돌, 받침모루 따위의 대장간 도구들이 출토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미루어 볼 때 대장장이 집단이 상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장인들은 그들의 작품에 이름을 새겨 넣었다. 고구려의 불상 뒷면에 그 불상을 바친 지주의 이름과 나란히 그것을 만든 장인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것이 있다. 삼국시대부터 종(鐘), 동기(銅器), 석탑(石塔), 목판(木板) 등에 그것을 만든 석장(石匠) 철장(鐵匠) 또는 글씨를 새긴 각자장(刻字匠)의 이름을 새겨 넣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명장(名匠)들은 신분을 보장받았고 따라서 생계유지를 걱정할 까닭이 없었으며 국가는 장인의 기술향상을 적극 권장하였다. 장인들은 군주와 귀족계급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았고 민중의 사랑과 이해 속에서 자유롭게 그들의 작품세계에 파고 들어갈 수 있었다.<sup>9)</sup>

그런데 이렇게 대우받던 장인들의 능력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유교 제도를 바탕으로 했던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천한 기예(技藝)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가죽공예의 장인을 ‘갓바치’라 하고, 대장장이, 용기장이 따위로 불리며, 상민이나 천민 등 하층계급으로 천시를 받게된다. 장인들의 이런 신분추락은 결국 뛰어난 거래문화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맥이 끊기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우리 전통공예 기술이 제대로 전해 내려온 분야가 거의 없다. 아름다리 재목을 다듬던 도편수에서부터 석공, 도공, 대장공, 철보 세공에 이르기까지 장인들은 남다른 능력과 솜씨를 발휘했지만, 돌아오는 대접은 ‘~쟁이’니 ‘~꾼’이니 하는 업신여기는 듯한 호칭이 고작이었다. 고려청자 기법이 끊어지고 거북선 원형이 보존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는 말하지만 기술을 천시했던 유교사상의 뿌리가 남아있어 ‘정작 내 자식은 안된다’는 식의 사고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 조선 후기로 내려 올수록 신분질서가 혼란을 겪고 흔들리면서 상인은 물론이고 공장(工匠)으로 성공해서 큰 재력을 지닌 천민 신분의 인물들은 갓 쓰고 도포를 입으며 족보를 위조해서 양반행세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성공한 장인(匠人)은 종사하는 전문 직종을 계승 발전

9) 김철순, 『한국민화론고』, 예경산업사, 1991, pp.29-33.

시켜 가업으로 전수 시킬 공리는 안하고 스스로 양반이 되고자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sup>10)</sup> 이것은 장인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상공인을 천시한 우리의 편견 때문이었다.

근대 장인의 기술 쇠퇴는 장인에 대한 제도적 천대와 비인도적 대우 영세한 수공업으로 끼니를 이어가던 그들에게 부과된 장세와 잡다한 부역노동까지 저야했던 어쩔 수 없는 척박한 현실의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므로 조선왕조시대에는 유교적 이념에 의하여 아무도 자발적으로는 장인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14세기 이래 수공업을 전문으로 하는 장인들은 이른바 사농공상이라는 유교제도에 따라 신분적으로 사회의 최하급 처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17세기 이후에도 법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변함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직업에 대해서 긍지를 갖지 못했다.

장인(匠人)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척도를 설명할 때 곧잘 비교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다. 지리적으로 이웃해 있으면서도 장인에 대한 대접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자식에게 기술을 물려주느냐의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일본에서는 자식에게 기술을 물려주어 집안 대대로 이어가도록 하는데 비해 우리 장인들은 오히려 말리려 드는 게 예사였다. “이 짓은 나 하나로 족하니 너희는 굶어 죽어도 제발 그만 두어라”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다. 아무리 멋들어진 솜씨를 발휘한들 사회적으로 고생과 멸시를 당하다 보니 자식에게 물려주기가 진저리치도록 싫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사정은 우리와 아주 판이하다. 일본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그 직업을 장인정신과 함께 후손들에게 기꺼이 물려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다른 직업을 넘보아서는 안된다. 변함없이 성심성의껏 기술을 닦는다면 언젠가는 번창할 것이다.’ 일본인들은 자식에게 이러한 훈계를 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장인이라는 말보다 직인(쇼쿠닌職人)이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고집스럽게 전통을 이어가는 철두철미함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쇼쿠닌들이 장인 정신을 발휘하여 탄생시킨 작품이나 기법에는 예(藝)자를 붙여

10) 황선명, 『장인의 세계』, 지구문화사, 2000, pp.48-50.

'소쿠닌게이(職人藝)'라고 한다. 쇼쿠닌들은 단순한 물건이나 기술이 아니라 영혼이 담긴 예술인으로 보며, 사회 전체가 그런 직인(職人)들의 장인정신과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만한 대접을 해준다. 그런 철저한 장인정신은 현대의 첨단과학에서도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본처럼 작은 나라가 세계와 당당히 겨루는 힘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창업 200년 이상의 장수기업은 총 41개국에 5,586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아시아(57.5%, 3,214개)와 유럽(42.0%, 2,345개)에 분포하고 있다. 국별로는 일본이 3,146개(56.3%)로 단연 으뜸이며, 독일 837개(15.0%), 네덜란드 222개(4.0%), 프랑스 196개(3.5%)의 순이다. 일본에는 창업 이후 1,000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장수기업이 7개나 되며, 500년 이상은 32개, 200년 이상은 3,146개, 100년 이상은 약 5만 개나 된다. 한편, 세계 최고(最古)의 장수기업은 서기 578년에 설립된 일본의 곤고구미로 1,430년 간 지속하고 있다.<sup>11)</sup>

오늘날 일본에서 장인이 계속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의 가치를 높이 인정해주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본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장인의 솜씨를 신성하게 여기는 관념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중세 일본인들은 장인의 작품이 단순히 인간의 기술에 의한 것이 아닌 성스러운 신의 힘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 여겼으며 그래서 장인들 역시 자신이 만드는 것이 성스러운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이후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 속에서도 존속되는 장인정신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sup>12)</sup>

일본의 장인이 자신의 직업에 몰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군신과 빈부, 상하의 분(分)을 강조한 신분적 위계질서를 들 수 있다. “순자는 “의(義)로써 나누면 조화롭고 조화로우면 하나가 된다” 라고 말하며 신분과 역할에 따라 각자 제 역할을 하는 것을 조화로 여겼다. 일본은 이러한 사상을 토대로 사농공상(士農工商), 천민으로 이어지는 세습적인 신분제를 통해 계급을 확고히 했고 정치 사회적으로는 병농(兵農)을 분리해 엄격한 신분

11) weekly.cnbnews.com/news 2008년 9월 10일.

12) 박종서, 위의 논문, p.6.



제도를 만들었다. 특히 지배계급은 장인과 상인들에게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실천 가치를 끊임없이 주입하고 체계화했던 것이다<sup>13)</sup> 그러므로 일본의 장인 정신, 즉 쇼쿠닌다마시이(직인혼職人魂)의 핵심은 분수를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공인된 점수, 즉 서열상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이다”<sup>14)</sup>

이처럼 일본에서는 지위와 역할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분을 뛰어 넘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장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를 이어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그 직업이 천한 것일지라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직업을 천직으로 삼고 그 일에 종사하였으며 기량을 더욱 연마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일본의 장인정신 형성은 장인 개인의 노력일 뿐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인 노력이자 문화적 배경에 따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일본과 달리 자신의 일을 대대로 잇는 장인정신의 풍토가 결여된 이유는 첫째, 유교의 영향아래 자리 잡은 뿌리 깊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의식이다. 14세기 이래 수공업을 전문으로 하는 장인들은 신분적으로 사회의 최하급 처우를 받았고 그것은 17세기 이후에도 법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장인들은 ‘팔자소관’이나 ‘배운 도둑질이 이것 뿐이라’서 등의 넋두리를 늘어놓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는 근세 이후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이다. 개화바람과 이에 뒤이은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 및 해방 후의 사회적 혼란 끝의 6.25와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는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허다한 전승문화를 저버렸으며 그런 속에서도 가장 극심했던 것이 장인의 세계였다.

### Ⅲ. 수기임명(修技任命)과 제업즉수행(諸業卽修行)

사전적 의미로 장인(匠人)이란 ‘심혈을 기울여 물건을 만드는 예술인’으로

13) 권경자, 『유학 경영에 답하다』, 원앤원북스, 2010, p.175.

14) 황영식, 『맨눈으로 보는 일본』, 모티브, 2003, p.393.

풀이된다. 한 가지 일을 파고들어 그것에 정통하고 전력과 최선을 다하는 철저한 정신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다. 장인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솜씨에만 국한된 사람이 아니다. 수많은 반복과 오랜 경험의 수련에 의해 장인의 솜씨는 경지를 초월하게 된다. 이러한 장인정신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up>15)</sup>에 따르면 예술가의 창작 활동이 심혈을 기울여 물건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예술가를 두루 이르는 말로 해석되기도 한다. 리처드 세넷 또한 그의 저서 『장인: 현대 문명이 잃어버린 생각하는 손』에서 ‘장인의식이란 일 자체를 위해 일을 잘해내려는 욕구’라고 정의한 바 있다.

우리의 옛 장인들은 “홍정은 홍정이요, 생계(生計)는 생계지만, 물건을 만드는 그 순간만은 오직 훌륭한 물건을 만든다는 그것에만 열중했다. 그리고 스스로 보람을 느꼈다. 그렇게 순수하게 심혈(心血)을 기울여 공예(工藝) 미술품을 만들어 냈다”<sup>16)</sup> 장인들은 일을 단순히 일로 여겼다가보다는 하나의 인간이 완성되어 가는 도(道)로 여겼다. 자신의 직업을 인생의 도와 서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통해 스스로의 인간됨을 완성시켜 나아가려고 했다. 그 같은 장인들은 명품, 명기를 만드는데 일생을 바쳤으며 자신의 혼을 불태우는 정성을 다했다. ‘우리나라 장인정신의 원류는 수기임명(修技任命)이다. 이 말은 기예를 닦은 다음 천명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으로 기술도 좋아야 하지만 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고 신용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sup>17)</sup>

우리 민족의 장인정신은 한 치의 오차도 한순간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했다. 도공(陶工)들의 장인정신이 좋은 예이다. 도자기를 구울 때 불가마의 온도가 떨어지자 자신의 몸을 태워 온도를 유지했다든지, 이미 완성된 도자기라 해도 자신의 혼이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 깨부순 일들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송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도수가 많았다. 흙 이기던 뺨손이가 이래서는 도무지 한 가마 채우지 못하리라고 송영감에게 내년엔 마저 지어 첫가마에 넣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몇 번이고 권해 보았으나 송영

1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16) 윤오영, 『방망이 깎는 노인』, 1977

17) 이기창 김용범, 『한국 최고의 가계』, 흐름출판사, 2005, p.255.

감은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면서도 독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다<sup>18)</sup>

송영감은 마침내 뜨거운 독가마 안으로 기어들어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단정히 아주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렇게 ‘독짓는 늙은이’ 송영감은  
외고집으로 자신을 불사른 빛나는 장인정신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장인정신은 도공에게 뿐 아니라 한옥, 나전칠기, 자수, 된장 등 전통  
문화와 음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도자기 가마에 불을 붙이기 전이  
나 도편수가 집을 짓기 위한 작업, 단청을 입히는 일 등의 일에서는 미리부터  
금욕생활과 목욕제계로서 몸을 단정히 하고 제를 지냈다고 한다. 단청장인  
이만봉 스님은 단청일을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기를 단청일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일을 배우려면 10여년을 두고 우선 물욕에서 떠나야  
하며 이 고행을 참는 것은 수행자의 인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sup>19)</sup> 또한 각자  
장(刻字匠)문기현 옹의 말을 빌리면 그 많은 글씨체가 혼자서 쓴 것처럼 같고  
일자 일획의 잘못이라도 없게 하기 위하여 한자 쓰고 합장하고 한 자를 각하  
고 일배했다고 한다.<sup>20)</sup>

이러한 장인들은 인내와 의지로 그들의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 달관과  
초월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얻어 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장인들은 특유의  
양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집단으로 특혜와는 거리가 먼 부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회적 공헌도가 매우 컸었다. 장인들은 학리적 이론보다 생활의  
체험을 중시하는 입장이었고 동류의식이 뛰어나 공동의 연대가 긴밀하며 사  
회적 변동의 시기에 임해 가장 수난받는 계층이었으며 예술을 감상하고 작품  
을 소장하는 계층이 아니라 감상과 소장의 작품을 생산하는 입장이었다. 그들  
의 장인적 애환이 생산품, 예술품으로 탄생했다"<sup>21)</sup> 는 말은 설득력 있는 지적  
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장인들도 그들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도(道)였

18) 황순원, 『독짓는 늙은이』, 황순원전집 1, 문학과지성사, 1980, p.293.

19) 예용해 『인간문화재』, 어문각, 1968, p. 276.

20) 위의 책, p.305.

21) 심재연, 「한국혼의 모색」, 『공대학보』, 경남대학교 공과대학, 1985.3. p.26.

다. 에도시대 경제사상가 ‘이시다 바이칸’<sup>22)</sup>이 주창한 제업즉수행(諸業即修行)은 일본 장인정신의 원류라 할 수 있다. 제업즉수행(諸業即修行)이란 ‘모든 일은 그 자체가 도를 닦는 것이다’라는 뜻이다. 모든 노동(일) 자체가 곧 정신수양이며 자기의 완성이므로 일하는 자체가 곧 도를 닦는 것과 같다. 돈보다 귀중한 것은 자신(인격)의 완성이니, 일생동안 열심히, 이익이 없더라도 대가를 바라지 말고 정진하라’는 것이다.<sup>23)</sup> 즉, 자신이 하는 일은 생산 활동이기 이전에 인격의 수양이라는 것이다. 이시다 바이칸의 철학은 일을 도(道)의 차원으로 승화시켜 일본의 장인 정신을 낳았다. 제업즉수행(諸業即修行)은 일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대한 기본철학 즉, 직업관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인들은 온갖 사물에 도(道)를 추구하는 기질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인은 무엇을 하든 도를 추구한다. 도는 처음에는 修道를 시작으로 劍道 茶道 華道 와 같은 정신수양과 그 의미가 매우 비슷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野球道 編輯道 소믈리에道 등 어떤 것이든 최종적으로는 도의 세계에 도달하는 세상이 되었다.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단순히 생업을 위하여 화과자를 만들었던 사람도 기술 추구에 몰입하게 되고 도를 추구하게 되어 결국 和菓子道가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 극단을 달리게 되면 궁극의 화과자나 자신만의 화과자를 만드는 일에 집념을 불태우게 된다. 이와같이 일본인들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도를 추구하는 장인기질을 지니고 있다’<sup>24)</sup>. 그래서 일본인들은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도를 깨친 것과 같다고 보았다. 일본에서는 최고 수준에 오른 사람에게 ‘가미사마(神様)’란 호칭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떤 분야든 최상의 경지에 이르면 도와 신으로 인정하고 숭상하는 것이다.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莊八)의 대망(大望)<sup>25)</sup>이라는 소설에서는 에도막부

22) 石田梅岩(1685~1744) 에도시대 심학(心學)의 원조 유교에 기초한 적극적인 윤리설을 주장하고 근로의 절대화와 상(商)행위의 윤리적 기초를 제시했다.

23) 이해익, 『대한민국 CEO 10계명』 북스넛, 2005, p.126.

24) 카와구치 모리노스케 지음 김상태 옮김, 『문화가 제품이 되는 나라 일본을 말한다』 비즈니스맵, 2009년, p.72.

25)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莊八), 『대망(大望)』, 박재희 역, 동서문화사, 2005.

이전 시대부터도 칼을 잘 만드는 장인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최고를 구가하는 이들에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나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를 비롯한 중앙이나 지방의 성주들이 각듯한 예의와 존경심으로 대함은 물론 사회적 신분이 낮은 장인들로부터도 의견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어떤 분야에서 최고를 이룬 이들에게서 세상경영의 마음가짐과 정신을 묻고 있는데 이는 도(道)는 도(道)끼리 통한다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일본의 장인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물건을 만들었던 이유를 무사문화의 영향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무사 사회에서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죽음이라는 극단적으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잇쇼겐메이(一生懸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은 ‘평생을 걸고 목숨을 바칠 각오로 한 가지에 몰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한다. ‘일본어에는 잇쇼겐메이(一生懸命)라는 말이 있다.’ 열심히’라는 뜻이다 한문을 자세히 보면 원래는 어떤 한 장소를 생명을 걸고 지키는 뜻에서 생긴 말이다. 잇쇼겐메이는 어디까지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삶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잇쇼겐메이의 정신이 사무라이에 나타나면 열심히 사람을 죽이는 침략의 문화가 되고 그것이 상인들에게 나타나면 열심히 돈을 버는 상업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체질화된 일본인의 국민성이 현대의 산업사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sup>26)</sup>

이렇게 기술을 중시하는 일본인의 기질을 일찌감치 간파한 사람이 있었으니 조선의 주자학자 강항이었다. 그는 임진왜란 때 일본의 포로가 되었으나 그 속에서도 귀중한 한일비교론인 『간양록』을 저술했다. 포로생활을 하면서 관찰한 일본인의 생활 속에 한국인과는 전혀 다른 가치의식이 있음을 발견하고 조선의 왕에게 일본의 특성을 알리고 미래를 조심할 것을 경고했다. 특히 그는 일본인의 천하제일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조선땅에서는 천대를 받았던 기술자들이 분야별로 ‘천하제일’로 일컬어지며 높은 대우를 받는 일본의 모습에 커다란 놀라움을 표했다.

왜놈들은 어떠한 재주나 물건이라도 반드시 천하제일을 내세웁니다. 천

26)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문학사상사, 2003.

하제일이라면 아무리 추악하고 하찮은 물건이라도 천금을 아끼지 않고 덤벼듭니다. 정원수를 심거나 도배를 하고 지붕을 이는 것 따위도 그렇거니와 심지어는 패를 차고, 도장을 파는 것에 이르기까지 천하제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천하제일의 명패가 붙은 것이라면 고개를 끄덕끄덕 아는 척 하면서 금이나 은을 내던지는 것이 보통입니다.<sup>27)</sup>

유학자인 강항의 눈에는 기술을 천하제일로 치는 일본인들이 다소 가소롭게 보인 듯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기술을 얼마나 중히 여겼는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잇쇼겐메이(一所懸命)를 외치면서 천하제일의 장인정신을 가꾸어 온 일본과는 달리 우리는 장인들을 함부로 추방시켰다. 그 결과 한국은 우수한 도자기를 많이 생산했으면서도 도공의 이름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강제로 끌려간 조선 도공은 일본에서 神社에 모셔지기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직업 또는 일의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자기 분야에서 최고 경지에 이르려는 일본인의 직인(職人)정신, 천하제일주의가 오늘의 일본 경제를 일군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 IV. 전문가 정신과 모노즈쿠리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압축 성장을 통해 놀랄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수많은 전통 산업이 고비용 비효율 산업이란 인식 하에 폐기되었으며,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전통 기법들이 사라지거나 사장(死藏)되고 있다. 즉 전통 장인들의 맥이 여러 산업에서 끊겼거나, 수백 년 걸쳐 내려오던 전통 장인정신이 현대 산업에는 제대로 접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와 달리 일본은 전통 장인정신을 보존 계승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90년대의 장기불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일본이 과거의 장인정신을 제대로 잘 살려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노

27) 강항, 『간양록』, 김찬순 옮김, 보리, 2006, p.223.

즈쿠리. ものづくり[物作り]라 할 수 있다. 모노즈쿠리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단순한 물건 만들기라기보다는 “혼을 담아 물건 만들기”라는 의미이며 제조, 제조기반 등에 해당하나 정확한 번역은 매우 어렵다.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노즈쿠리를 제조업이나 제조업의 정신,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술 또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단순작업의 제조업이 아닌 특히 장인들의 손에 의한 고도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정의하고 있다.<sup>28)</sup>

이렇게 과거의 장인정신을 계승 발전시킨 일본은 기술의 나라, 디자인의 나라,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이미지가 굳혔고 이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장인정신은 과학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13명이나 배출함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장인국가로 거듭나고 있다<sup>29)</sup> 뿐만 아니라 조상대대로 내려온 상점을 뜻하는 노포(老舗 시니세) 라든지 기예(技藝)의 세계에서 한 유파의 정통을 잇는 종가집을 뜻하는 가원(家元이에모토) 등은 장인정신 계승의 또 다른 사례이다.

일본문화 전문가 김지룡씨는 『나는 일본 문화가 재미있다』(명진출판사 1998)에서 “일본에는 전통적으로 ‘직인정신(職人精神, 장인 정신)’과 ‘천하제일주의’ 사상이 있다. “이런 정신이 음악과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단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연구하는 태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다”라고 일본의 장인정신이 현대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분석했다. 장인정신의 계승이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의 실체와 원동력이 되었다고 여러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다.

과거에 일본인은 ‘백제에서 수입한 제품이 너무 좋다. 백제 것이 아닌 것은 ‘시시하다’ ‘가치없다’ ‘하찮다’ 라는 의미로 ‘구다라나이’ (下らない 백제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했다고 한다<sup>30)</sup> 한국인은 그만큼 손재주가 비상한 것

28) Wikipedia. <http://ja.wikipedia.org>

29) 권경자, 위의 책, p.177.

30) 일본어 중에 백제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구다라 나이!” ‘별 볼일 없다’, ‘시시하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것은 “백제(구다라)의 물건이 아니다 (나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만큼 백제인들의 솜씨가 뛰어났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진형석, 『일본 속 우리 문화』, 더불어 책, 2006, p.34.

으로 이력이 나 있는 민족이다.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것도, 강우량을 재는 측우기를 제일 먼저 발명한 것도 우리나라 사람이다. 일본 사람에게 도자기 굽는 방법으로 처음으로 가르쳐 준 것도 우리나라 장인이었다. 임진왜란 때 끌려간 도공의 후예들은 지금도 일본에서 제일가는 도예가들로 손꼽힌다. 우리에게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럼으로써 장인 스스로도 자긍심을 갖지 못했고 그 결과 자손 대대로 기술을 물려주고 발전시키는데 인색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기술자들을 천대해온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인들은 대를 이어가며 전통과 예술, 기술의 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화의식은 각 분야의 수많은 장인들을 탄생시키며 투철한 직업의식이 반영되어 단순한 생산품을 예술품으로 만들어내었다. 자신이 직업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그들의 노력과 열정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였고, 다른 사람도 그 전문성과 가치를 인정하여 합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다. 일본이 처음부터 기술대국이었던 것은 아니다. 많은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그들의 전통문화를 근대에 잘 살린 결과 오늘의 경제 부흥을 일군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현재의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리처드 세넷은 『장인: 현대 문명이 잃어버린 생각하는 손』에서 ‘장인의식이란 일 자체를 위해 일을 잘해 내려는 욕구’이며 장인은 손으로 일하면서도 계속 머리로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현대에는 기계화, 전산화로 머리와 손이 분리되어 장인의 역량이 전수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도 아날로그적 강점이 결코 퇴색된 것은 아니고 이른바 ‘명품’이라고 내세우고 그렇게 알려진 제품은 모두 장인인 손으로 직접 제작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계는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제작하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고객의 특별한 수요에 맞춰 하나하나 재료의 특성을 살려가며 제작하는 것은 사람의 손이 낫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감성의 시대에 들어 갈수록 아날로그적 프로의식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하며 후기산업사회가 진전될수록 장인의 역할이 더욱더 대두될 것임



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생활의 달인’과 같은 프로그램이 널리 인기를 누리고, 명품의 브랜드 스토리에는 반드시 ‘장인’이 들어가는 것을 보아도 리처드 세넷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유효하다고 하겠다. 장인을 향한 우리들의 호기심이나 동경은, 자본과 기술에 쫓겨 추방당한 장인들의 귀환을 바라는 우리의 절실함을 반영하는 증표일 것이다.

장인들은 그들이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혼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분신’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인은 그들의 제자를 받아들일 때, 무엇보다도 기교가 아닌 그의 정신적 자세를 먼저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장인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전문가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인들은 곧 전문가들이고 그 정신은 전문가 정신<sup>31)</sup>이기 때문이다.

## V. 결론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장인정신의 형성과정, 장인정신의 근본 철학이나 윤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장인개념의 현대적 의의를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 장인들은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 최고를 추구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있으며 도(道)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장인정신이 계승이 미미한 반면, 일본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일본 제조업의 뿌리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장인정신이 쇠퇴한 것은 장인을 천시하는 유교적 전통이 인재의 유입을 막고 대를 잇는 전승을 어렵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와 달리 일본의 장인이 그 기술과 명성을 이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신을 섬긴다는 장인들의 자긍심과, 장인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와 보호가 있어 가능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인정신 형성과 계승은 한 개인의 노력일 뿐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인 노력이자 문화적 배경에 따른 결과임이 자명해졌다.

31) 「장인(匠人)푸대접하는 나라」, 『조선일보』, 2001. 10.31 사설.

그러므로 훌륭한 장인정신을 자랑하던 우리 민족의 긍지를 되찾을 수 있는 해법은 무엇보다도 장인을 보호하고 대접해줄 제도적 뒷받침과 장인을 존중하는 풍토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와 같이 장인들을 인정해주는 환경기반을 마련하여 마음 놓고 자신의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만 할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이 변화에 부응하여 발 빠르게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장인정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장인정신이 단지 전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 속의 본질적 의미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직업인으로서의 참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는 점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장인’이 될 수는 없지만 ‘장인정신’은 가질 수 있다. 우리말 ‘바치’와 ‘장이’는 한민족의 정신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철저한 장인정신과 직업윤리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더 잘해내려는 마음을 장인정신(craftmanship)이라 칭하는데서 알 수 있듯, 장인정신과 그것이 작동하는 실기 작업은 인간이 수행하는 다양한 일들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sup>32)</sup>.

---

32) 유홍준 외, 『우리시대의 장인정신을 만나다』, 북노마드, 2010, p. 31.

❖ 참 고 문 헌

- 강 항, 『간양록』, 김찬순 옮김, 보리, 2006.
- 권경자, 『유학 경영에 답하다』, 원앤원북스, 2010.
- 김영애, 『전통수공업과 장인사회의 변천에 관한연구』,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12
- 김지룡, 『나는 일본 문화가 재미있다』, 명진출판사, 1998.
- 김철순, 『한국민화론고』, 예경산업사, 1991.
- 박중서, 『일본 장인정신 형성의 사회적 배경연구』,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2013.6.
- 신혜원, 『일본의 장인정신에 관한 연구』,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2007.12
- 심재역, 「한국혼의 모색」, 『공대학보』, 경남대학교 공과대학, 1985.3.
- 유홍준외, 『우리시대의 장인정신을 만나다』, 북노마드, 2010.
-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문학사상사, 2003.
- 예용해, 『인간문화재』, 어문각, 1968, p. 276.
- 이효창, 『조선시대 장인제도와 장인교육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12.
- 이해익, 『대한민국 CEO 10계명』 북스넛, 2005.
- 진형석, 『일본 속 우리 문화』, 더불어 책, 2006.
- 황선명 『장인의 세계』, 지구문화사, 2000.
- 황순원, 『독짓는 늪은이』, 황순원전집 1, 문학과지성사, 1980.
- 리처드 세넷, 『장인: 현대 문명이 잃어버린 생각하는 손』, 김홍식 옮김, 21세기북스, 2009.
-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莊八), 『대망(大望)』, 박재희 역, 동서문화사, 2005.
- 카와구치 모리노스케, 『문화가 제품이 되는 나라 일본을 말한다』, 김상태 옮김, 비즈니스맵, 2009.

❖ ABSTRACT

##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View about the Craftsmanship of Korean and Japanese

Jeong, Su Hyun

The purpose of this paper look at the basis of the cultural differences of Korean and Japan by comparing the craftsmanship.

Korean craftsmanship and master craftsman making traditional handicrafts and artwork would die out at a critical moment. The craftsmanship and system could not be established because of discrimination in the traditional four classes of society( scholars, farmers, artisans and tradesmen), invasions of other countries and discontinuity of tradition from modernization. On the contrast, in Japan, it was possible to establish traditional handicrafts and artworks, technique and craftsmanship with apprentice system and various social privilege and treatment even in the same traditional four classes of society ( scholars, farmers, artisans and tradesmen). It was common to pass down the family business for a hundreds of years with self respect between Japanese master craftsmen and lots of people succeed the family business will now.

Japanese craftsmanship is originated from 'worship to god' Medieval Japanese believed that the thing changes human mind, artistic talent, masterpieces and faith were connected to sacred power. Therefore, master craftsmen and their works were also made by the power of god. In this context, craftsmen were protected and treated in socially and nationally.

It is that the social treatments and supports in national level and their own pride and continuous training of techniques and abilities as the main driving force to maintain the craftsmanship in Japan. Korea has the sale level of competitive tradition and technique in comparison any other countries. Japanese craftsmanship study will be a critical data in the protection and maintenance of Korean traditional and technique

---

**Key Words**

장인정신, 장인, 바치, 쇼쿠닌, 전문가정신

craftsmanship, craftsman , Bachi ,shokunin, professionalism.

논문접수일: 2014. 05. 10

심사완료일: 2014. 06. 09

게재확정일: 2014. 06. 13